

# 공원 음주·새벽잠 깨우는 소음 잇단 추태에 시민들 더 열반네

## 폭염 속 끝불건 백태

8일 밤 광주시 남구 백운동 푸른길 공원에서는 벤치에 앉아 캔맥주 등 술을 마시는 시민이 곳곳에서 보였다.

폭 2m에 불과한 푸른길을 걷기 위해서는 벤치 바로 앞을 지날 수밖에 없는데, 벤치에 앉아있는 일부 시민의 주변에선 술냄새가 진동할 정도였다. 일부 빈 벤치에는 먹다 버린 오징어 등 음식물 찌꺼기가 비닐봉투에 담긴 채 놓여 있어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푸른길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걷기운동을 한다는 김모(여·31·백운동)씨는 “술에 취한 사람들이 장난을 친다며 강아지를 놀래키는 경우가 있어 깜짝깜짝 놀라곤 한다”면서 “가끔은 성추행성 말까지 듣기도 한다. 제발 술은 다른 곳에서 마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밤도 밝이지만, 올해는 폭염 여파로 새벽 운동을 하는 시민이 늘면서 ‘운동 소음’을 호소하는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광주 동구에 따르면 최근 새벽마다 큰 소리로 박수를 치는 소리가 들려 잠을 설치고 있다는 동구 학동 주민의 민원이 제기됐다.

매일 오전 6시 무렵 광주 주변에서 아침 운동을 하는 한 청년여성이 운동 삼아 박수를 크게 치는 바람에 새벽잠을 설치는 등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치 아니라는 것이다.

동구청 공원녹지와 직원들은 수차례 현장을 방문한 끝에 일명 ‘박수치는 여성’을 만나 민원내용을 전달했다. 여성은 “미처 몰랐다. 앞으로는 박수치며 운동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고성방가에 쓰레기 악취 곳곳 낮부끄러운 애정행각 아파트 담배 연기 갈등 반라 노출 등 민원도 빈발

동구 자산동에서는 마을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구청이 설치한 평상이 문제가 됐다.

폭염 이후 조선대학교 인근 원룸촌 골목길 내 평상에 밤만 되면 다양한 사람이 몰려들면서 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각종 추태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새벽 2~4시까지 평상에 앉아 시끄럽게 술을 마신 후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 담배를 피는 사람은 기본이고, 진한 애정행각을 벌이는 젊은 연인, 이불까지 켜고 자고 가는 주민 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라는 게 인근 주민의 하소연이다.

최근 남구청이 주월동 푸른길공원 광장에서 개최한 ‘푸른길 평화콘서트’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이 콘서트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낮시간을 피해 오후 8시부터 진행됐는데, 행사

2시간 전부터 리허설이 열리면서 4시간 넘게 음악소리가 울려 퍼졌던 것.

진월동에 거주하는 주민 B씨는 “큰 음악 소리가 누군가에게는 듣기 좋을지 몰라도, 휴식을 취하는 주민에게 소음일 뿐”이라며 “가뜩이나 더운데, 음악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창문까지 닫아 놓으니 더 열이 났다. 폭염일 때는 소음발생 우려가 있는 행사만큼은 자제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아파트 내에서도 폭염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광주 북구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내 흡연과 복장문제 등을 놓고 주민간 갈등이 발생했다.

3층에 사는 한 주민은 “폭염 이후 갑자기 1층 화단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내로 담배연기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 더위에 창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아파트에서는 가족들이 커튼 등도 개방한 채 거의 반라 차림으로 집안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외부로 노출돼 이웃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한 주민은 “아무리 자기 집이라곤 하지만, 여러 가구가 밀집한 아파트에서는 최소한의 양보하든 커튼을 하는 게 이웃에 대한 예의가 아니냐”고 말했다.

광주시 마을분쟁해결센터 관계자는 “최근 폭염과 관련한 각종 민원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폭염 관련 분쟁은 서로가 조금만 양보하면 해결될 수 있는 만큼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여름 별자리 여행 신나요

여름독서교실 ‘반짝반짝 별자리 여행 프로그램’이 8일 광주시 북구 일곡도서관 문화체험실에서 열렸다. 초등학생들이 태양계와 별자리를 이용해 만든 종이로켓을 선보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여고 성추행 사건’ 수사 수능 이후로 연기

가해교사 11월말께 소환할 듯

교사 여러명이 제자 180여 명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폭로가 나온 광주 한 여자고등학교에 대한 경찰수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광주 남부경찰에 따르면 3학년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추행 피해 진술 청취를 학생이 원할 경우 오는 11월 15일 수능시험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경찰은 여경 10명을 투입해 지난 6일부터 고3 학생 36명으로부터 경찰서 외부 공간에서 피해조서를 받았고, 이날은 15명을 차례로 조사했다.

이 학교 여름방학은 고3 수험생이 이날, 1·2학년 학생이 오는 19일 끝난다.

광주시교육청 전수조사에서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학생이 180여명에 달하는 만큼 경찰이 개학 전까지 피해 학생 조사를 마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피해 학생 중 대다수가 3학년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능시험 이후에 피해학생 조사를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피해학생 조사 후 진행될 가해교사 소환조사는 빠르면 11월말께나

명을 차례로 조사했다.

이 학교 여름방학은 고3 수험생이 이날, 1·2학년 학생이 오는 19일 끝난다.

광주시교육청 전수조사에서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학생이 180여명에 달하는 만큼 경찰이 개학 전까지 피해 학생 조사를 마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피해 학생 중 대다수가 3학년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능시험 이후에 피해학생 조사를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피해학생 조사 후 진행될 가해교사 소환조사는 빠르면 11월말께나

이 학교 여름방학은 고3 수험생이 이날, 1·2학년 학생이 오는 19일 끝난다.

광주시교육청 전수조사에서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학생이 180여명에 달하는 만큼 경찰이 개학 전까지 피해 학생 조사를 마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피해 학생 중 대다수가 3학년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능시험 이후에 피해학생 조사를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피해학생 조사 후 진행될 가해교사 소환조사는 빠르면 11월말께나

이 학교 여름방학은 고3 수험생이 이날, 1·2학년 학생이 오는 19일 끝난다.

광주시교육청 전수조사에서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학생이 180여명에 달하는 만큼 경찰이 개학 전까지 피해 학생 조사를 마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피해 학생 중 대다수가 3학년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능시험 이후에 피해학생 조사를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피해학생 조사 후 진행될 가해교사 소환조사는 빠르면 11월말께나

이 학교 여름방학은 고3 수험생이 이날, 1·2학년 학생이 오는 19일 끝난다.

광주시교육청 전수조사에서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학생이 180여명에 달하는 만큼 경찰이 개학 전까지 피해 학생 조사를 마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피해 학생 중 대다수가 3학년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능시험 이후에 피해학생 조사를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피해학생 조사 후 진행될 가해교사 소환조사는 빠르면 11월말께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경찰이 청구한 피해진술 내용은 광주시교육청 전수 조사에서 드러난 성희롱·성추행 폭로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조서를 토대로 가해교사 범위를 정해 출석을 통보하고 혐의가 드러나면 피의자로 인건할 방침이다. 해당 학교 전체 교사는 57명(남자 39명·여자 18명)으로, 교육청이 수사 의뢰 대상으로 지목한 교사는 16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시기를 수능 이후로 늦춘다고 해도 피해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수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여관서 묵던 러시아인 숨진지 수일만에 발견

여관에 묵던 러시아인이 숨진 지 수일 만에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서구 광천동 한 여관 객실에 러시아인 A(21)씨가 숨져있다는 신고가 전날 오후 8시 15분께 인천경찰청 112상황실로 접수됐다.

A씨 지인으로 추정되는 신원미상의 인물이 이날 시신을 발견해 러시아에 있는 A씨 모친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렸고, A씨 모친은 인천에 사는 지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내용을 통보받은 광주서부경찰은 현장을 찾아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시신은 심하게 부패

한 상태였고, 최초로 발견해 A씨 모친에게 알린 인물은 연락이 두절됐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부터 이 여관에 묵었으며, 일주일 치 숙박비를 한꺼번에 계산한 3일 오후 4시 40분께 마지막으로 목격됐다. 경찰은 여관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되기까지 해당 객실에는 아무도 드나들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A씨 사망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또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A씨 입·출국 현황과 한국을 찾은 목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한영 기자 young@

## 물놀이 70대 숨진 채 발견

8일 오후 2시 4분께 전북 남원시 산내면 한 하천에서 물놀이하던 A(7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주변 피서객은 “남성이 물 위에 떠 있다. 숨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산악회원 30여명과 함께 남원을 찾았다가 물놀이 도중 변을 당했다.

이날 처음 산악회 모임에 참석한 A씨 거주지는 장성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산악회원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 ‘직권남용 혐의’ 여수해경 간부 직위해제

해양경찰 간부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8일 서해지방해양경찰에 따르면 해경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A 경정을 직위 해제했다.

A 경정은 전임 근무지 재직 시 업무 처

리 과정에서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지난 6일 오후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부터 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 A 경정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 축사 인허가 벌미 5천만원 갹긴 지역 주간지 대표 구속

영암경찰청 “축사 인허가를 벌미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모 지역 신문사(주간지) 대표 A(61)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축산업에 하려는 B씨에게 ‘군수 및 담당 공무원을 잘 알고 있고, 군수의 약점을 잡고 있어 쉽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인사비 등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군청 인허가를 담당하는 팀장과 과정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왜 허가를 빨리 내주지 않느냐’며 겁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kwangju.co.kr

## 강용석, 악플러 소송 패소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불륜 의혹을 다룬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단 네티즌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8일 서울동부지법 민사2부(이대우 판사)에 따르면 강 변호사가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 13명을 상대로 1명당 20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댓글이 다소 무례한 표현도 있지만, 전직 국회의원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강 변호사가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은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사회 상규에 위반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연합뉴스

# 상가원룸 매매 [신축전문]

□ 월곡시장 2분 (일신아파트 옆)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 공실 없음 (항시 임대대기)

□ 1층 ★상가 2칸★

□ 2층~3층 (원룸 9개) (투룸 2개)

□ 4층 (최고급 주택)

★ 공원앞 전망최고 ★

보 9천 · 월 600만 (용3억)

▶ 매가 9억3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 상가매매 (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  
롯데마트 앞  
19평 (모든 업종가능)  
보 5백 월40만 (용 2천)

▶ 시세 1억3천  
매가 5천900만

① 상무지구 6층상가 (23평) 보500만 월40만 ▶ 매가6천400만 (용 2천만)

②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16개) 월세 600만 ▶ 매가 8억4천만

③ 월곡동시장 2분 ▶ 매가 8억4천만 원룸12개, 투룸2개)총 14개 (월수익 550만)

④ 전대정동 2분 (원룸18개, 안집1개) 보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 (용3억5천만가능)

010-6670-9800  
062-382-5500

# 법률 경매

① 경매교육 (기초부터 ~ 실전 전문) ★ 7월 개강 선착순 모집 ★

(주)대신경매

토지 기타 추천

1) 남구 송하동 (근린시설) 토 138평 건물 491평 ▶ 감평가 12억1천 → 최저가 8억5천

2) 서구 금호동 (1층 상가) 토 69평 137평 ▶ 감평가 13억 → 최저가 7억3천

3) 광산구 소촌동 (다가구 원룸) 토 80평 건 144평 ▶ 감평가 3억5천5백 → 최저가 2억4천8백

4) 북구 오치동 (4층 상가건물) 토 199평 건 370평 (1층 대형 마트) ▶ 감평가 17억2천 → 최저가 12억

1) 광산구 도천동 (1,373평) 유통단지 입구 교차로 코너 6차선 대로 접 (하남공단도로) ▶ 감평가 35억 → 최저가 35억

2) 진곡산단 공장용지 (1,922평) ▶ 감평가 25억 → 최저가 25억

3) 서구 덕흥동 (1,210평) ▶ 감평가 12억8천 → 최저가 12억8천

4) 광산구 지족동 (98평) ▶ 감평가 1억1천만 → 최저가 1억1천만

5) 나주 금천면 과수원 (2,575평) ▶ 감평가 5억5천 → 최저가 3억8천

★ 평택 투자자 모집★  
송탄역 1분 초역세권 투자자 모집 연 20% 보장

근린상가/빌라/숙박시설	A.P.T / 주택	공장 / 기타
① 북구 유동 (숙박시설) 토100평 건288평 ▶ 감평가 9억3천 → 최저가 9억3천	① 서구 병천동 현대아파트 (40평) ▶ 감평가 2억9천 → 최저가 2억	⑥ 광산구 월전동 (공장) 토1999평 건2,400평 ▶ 감평가 88억 → 최저 47억
② 서구 양동 (숙박시설) 토188평 건272평 ▶ 감평가 2억9천 → 최저가 7억2천5백	② 광산구 수원지구 수원리채 (32평) ▶ 시세 6억 → 최저가 4억2천	⑦ 광산구 오선동 (공장) 토506평 건2526평 ▶ 감평가 12억 → 최저 9억9천
③ 서구 치명동 (3층상가) 103평 ▶ 감평가 8억 → 최저가 5억9천	③ 북구 운암동 현대아파트 (25평) ▶ 감평가 1억9천 → 최저가 1억2천	⑧ 광산구 도천동 (공장) 토510평 건237평 ▶ 감평가 3억 → 최저가 8억4천
④ 북구 용봉동 (2중중 6층) 117평 ▶ 감평가 8억1천 → 최저가 5억9천	④ 첨단지구 호반베르디움 (25평) ▶ 감평가 3억95천 → 최저 3억95천	⑨ 전남 장성 북 (공장) 토510평 건176평 ▶ 감평가 3억 → 최저가 1억6천
⑤ 북구 양산동 (근린상가) ▶ 감평가 4억4천5백 → 최저가 4억4천	⑤ 광산구 운남동 남양이파트 (24평) ▶ 감평가 1억6천 → 최저 1억2천	⑩ 남구 백운동 (빌라) 토65평 건145평 ▶ 감평가 3억9천 → 최저가 2억

010-7384-7800      010-6670-9800  
직원구할 (경매 직원, 컨설팅, 부동산관련 함께하십시오)